"절망이 날아오를 땐 전라도 포구로 가자"

곽재구의 포구기행

곽재구 지음

"안녕, 이정표 앞에 멈춰 선 나는 눈인사를 한다. 낯선 마을들의 이름이 적힌 이정표 앞에 섰을 때 여행지는 그 마을의 이름 앞에서 어떤 영감을 느낀다. 새로운 삶 시간, 언덕, 풍경, 꽃, 흙냄새…. 녹색 바탕에 흰색의 페인트로 적힌 마을들의 이름 속에는 그 마을의 과거와 현재, 사랑과 추억의 모든 싱싱하고 쓸쓸한 풍경들이 배어있다. 녹물이 배어있다 한들 어찌 그 이정의 문신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므로 모든 여행자들은 이정표 앞에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의 눈빛을 지니게 된다."

"인간의 품위와 사랑의 향기가 지평선까지 펼쳐지는 작품"을 쓰는 것이 나무와 독자에 대한 예의라고 믿는다는 시인이 있다. 바로 '사평역에서'의 시인 곽재구가 그렇다. 그의 글에서는 삶의 희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진다.

이번에 곽재구 시인이 여행 산문집 '곽재구의 포구기행'을 펴냈다. 지난 2002년 첫 출간된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책에는 초판에서 아쉬웠던 표현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여행지에서 시인이 직접 찍은 수백 장의 슬라이드 사진들 중 59장이 실렸다. 또한 초판의 몇몇 사진을 교체하고 새로 배치해 책의 만듦새를 다졌다.

전국 19개 포구에 머물며 60여 곳을 들른 시인의 여행기는 전국에 독서 열풍을 일으켰다. 당시 MBC TV프로 '느낌표'의 '책을 읽읍시다' 추천도서로 선정돼 인세와 판매수익금 일부가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사용됐다.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명저 100선'에도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모두 25개 이야기로 꾸려진 이번 책에는 강원도 고성 화진포에서 시작해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의 포구를 거쳐 전라도 해남 어란포구에서 여정을 끝맺는다.

저자는 "포구기행을 하는 동안 포구의 모습은 내게 환생(還生)의 개념으로 다가왔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작은 배가 아침 햇살을 몸에 두르며 포구를 떠났다가 저녁 햇살 속으로 돌아오는 모습. 이 모습이 내게 불변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인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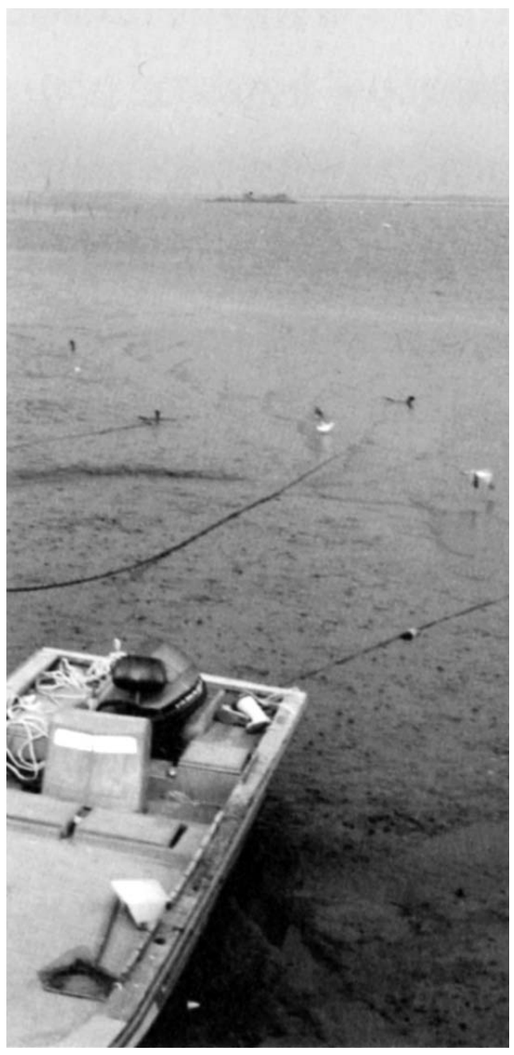
1부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네'에는 8개의 정갈한 산문이 수록돼 있다. '겨울꽃 지고 봄꽃 찬란히 피어라'(화진 가는 길), '소라고둥 곁에서 시를 쓰다'(선유도 기행), '하늘 먼 곳, 푸른빛의 별들이 꿈처럼 빛나고'(어청도에서), '아, 모두들 따사로이 가난하니'(삼천포 가는 길), '그곳에 이상한 힘이 있었다'(동해바다 정자항에서) 등이다.

2부 '절망한 것들이 날아올 때'는 주로 전라도 지역의 포구에 관한 글이다. '묵언의 바다'(순천만에서), '모든 절망한 것들이 천천히 날아오를 때'(향일암에서 나무새의 꿈을 만나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팥죽집 가는 길'(회진 장터로 향하는 새벽길), '개펄이 만든 지평선이 보이네'(변산반도 국립공원 왕포) 등이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길 위에서 추는 춤'이라는 주제로 9개의 글을 만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따뜻한 바람처럼'(우도 가는 길), '신비한 하늘의 아침'(조천), '저 너머 강둑으로 가고 싶어요'(바람 아래 해수욕장을 찾아서), '동백숲 속에 숨은 선경'(지심도 가는 길)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포구의 여정에서 바닷가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와 자신의 여행담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개펄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깔아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바닷가의 낯선 모텔에서 엽서를 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어릴 적의 추억과 상처를 떠올리며 시를 향한 열망과 좌절 등도 담담하게 들려준다. 이처럼 시인의 순정한 마음이 담긴 포구마을 여행기는 세파에 지친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다. 〈해냄·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곽재구 시인의 포구마을 여행기는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왕포. 〈해냄 제공〉

보석함처럼 반짝이는 라트비아 … 털실장갑 같은 따뜻한 이야기

마리카의 장갑

오가와 이토 지음 · 이윤정 옮김

시바사키 코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달팽이 식당'은 도시에서 상처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식당을 연 주인공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츠바키문구점'은 11대째 지속돼 온 가마쿠라 문구점을 이어받아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는 주인공의 성장기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준 두 작품은 모두 원작자가 있다. 소설가 오가와 이토다.

그녀의 신작 '마리카의 장갑'은 또 한편의 따뜻한 소설로 읽는 내내 포근한 털실 장갑을 손에 끼고 있는 듯한 행복한 마음이 든다. 작품의 배경은 일본이 아닌, 가상의 나라 루프마이제공화국으로 그녀가 라트비아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번 소설은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동화같은 이야기다.

"마리카가 첫울음을 터뜨린 것은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소설은 태어나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엄지장갑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 루프마이제공화국을 무대 삼아 마리카라는 한 여자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따라간다.주인공 마리카는 건국 30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남편과 생이별을 하는 등 역경을 겪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다. 작품의 배경이 된 라트비아 역시 과거 수차례 강대국의 점령과 박해를 받았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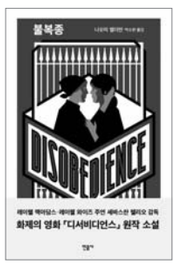
숲과 호수로 둘러싸인 루프마이제공화국. 꽃과 나무의 정령을 믿는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에는 손에 꼭 맞춘 뜨개 장갑과 평생을 함께 하는 전통이 있다. 마리카의 일생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한 장갑이 함께한다.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받은 첫 번째 장갑, 첫사랑에게 직접 떠서 선물한 장갑, 청혼을 수락하는 의미가 담긴 장갑, 소중한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깃든 장갑 등이다. 여행에 동행한 일러스트레이터 히라사와 마리코의 섬세한 삽화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인터뷰에서 "보석함처럼 반짝이는 라트비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야기 조각들을 모았다. 그곳에서 만난 숲, 바람, 햇빛, 호수, 사람들의 선량한 웃음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 말미에는 오가와 이토의 라트비아 여행 에세이와 히라사오 마리코의 일러스트를 수록했다. 〈작가정신·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불복종=세바스찬 렐리오 감독이 연출한 영화 '디서비디언스'의 원작 소설이다. '불복종'은 인간의 참된 본성과 행복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전통과 강압적인 종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애초에 반항하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스스로 각성해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민음사·1만5800원〉

▲작전명 서치라이트: 비랑가나를 찾아서=아시아 여성들이 치러낸 전쟁, 그 아픈 역사를 다룬 페미니즘 다큐소설이다. 주인공 매리엄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대학생으로 지식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동생을 고향에 보내고 혼자 다카에 남아 있다 적군인 파키스탄 군인에 붙잡혀 '비랑가나'가 된다. 책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여성들이 어떻게 '비랑가나'에서 '창녀'로 전락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프북스·1만3000원〉

▲세계사의 거장들: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계사, 15~16세기(유럽편)=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 살았던 레오나르드 다 빈치, 마키아벨리, 토마스 모어,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등 5인의 거장들을 다뤘다. 5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따라가다 보면, 15~16세기 유럽의 사회상과 역사적 흐름을 그릴 수 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 시대는 다르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비춰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간디서원·2만5000원〉

▲체수유병집: 글밭의 이삭줍기=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지식경영에서 한국학 속의 그림까지 고전과 관련된 전방위적 분야를 탐사하는 고전학자 정민 교수의 산문집이다. 다채롭고 풍성한 글밭에서 가려 뽑은 명문 50편을 통해 빛나는 사유의 정수를 만난다.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개하고 연암 박지원, 방법의 사유로 문제를 풀어주는 다산 정약용의 일화를 풀어내면서 연암과 다산의 시대를 압도한 사유의 힘을 만난다. 〈김영사·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떡갈나무와 바오밥나무=서로 다른 나무에 사는 다람쥐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난민 문제에 대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하고 있다. 전쟁과 난민, 증오와 우정 그리고 현명함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이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용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등 주인공 다람쥐들은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지양사·1만2500원〉

▲꼬마생쥐 샘과 줄리아=2012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던 네덜란드 그림책 '꼬마 생쥐 줄리아'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극장에 놀러 가요!'에 이어 '신나는 놀이공원에 가요!'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생쥐 아파트 광장에 들어선 놀이공원에 얽힌 이야기로 거대 인형 집 바깥에 조성된 새로운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재활용품'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롤러코스터, 무시무시한 유령의 집, 아기자기한 회전목마, 신명 나는 범퍼카 등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학수첩리틀북·1만4000원〉

▲수리 가족 탄생기=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다양한 가정 형태가 함께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십 대 소년소녀에 대한 이야기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한부모 가정(미혼모 가정) 소녀, 수리를 주인공으로 수리의 눈에 비친 세상과 그 세상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엄마의 모습, 친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하고 꿈에 한 발짝 다가서며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파란자전거·1만1900원〉